3월 3주차

2차 과제

시가문학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김소월, '진달래꽃'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나) 이육사, '꽃'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 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北)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約束)이여

한바다 복판 용솟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나비처럼 취(醉)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희생의 국어 솔루션 김대기 4% 국어 http://cafe.naver.com/kdk0619 010-6317-2829

[문제 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6)

①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②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있다.
③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④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설득적 어조를 구사하고 있다.

[문제 2] (가), (나)의 '꽃'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7)

① (가)에서는 꽃을 임과 동일시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꽃의 외면적인 속성을 강조한다.
③ (가)에서 꽃은 사랑이 없는 세상을 의미한다.
④ (나)에서 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드러낸다.
⑤ (나)에서 꽃은 극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상이다.

[문제 3] (가) 시의 3연은 처음 발표되었을 때 <보기>와 같았다. 고쳐 쓰기를 통해 얻은 시적 효과를 가장 적절하게 평한 것은? 208)

<보　기>
가시는길 발거름마다 뿌려노흔 그꼿을 고히나 즈러밟고 가시옵소서.

① 어휘를 바꾸니 시적 대상이 바뀌었군.
② 피동 표현을 첨가하니 화자가 바뀌었어.
③ 시행의 길이를 줄여서 고독의 의미를 강조했군.
④ 심상을 다양화하여 자연과의 친화를 보여 주었군.
⑤ 시어를 바꾸고 글자 수를 조절해 운율상의 배려를 했군.

[문제 4] (나)에서 시행의 함축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209)

①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②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③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려
④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⑤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문제 5] (가)와 (나)의 시적 화자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작품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210)

① (나) : 당신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면 절대 가지 말라고 임을 붙잡든지, 아니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미련을 남기지 않고 헤어지든지 했을 것입니다.

② (가) : 떠나는 임에게 꽃을 뿌린다는 것도 소중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프면서도 그것을 안으로 삭이며 인내하는 것이 우리 여인들의 전통적인 정서가 아니던가요?

③ (나) : 그런 태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어차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굳은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④ (가) : 임이 떠난다는 현실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면서도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의 감정만으로 정리하기 힘든 게 바로 인간 아니던가요? 제가 했던 말은 그런 심정의 표현이지요.

⑤ (나) : 사실,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들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럴 경우 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곤 합니다.

화성의 국어 솔루션
김대기 4% 국어
http://cafe.naver.com/kdk0619
010-6317-2829

시가문학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색, '부벽루'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텅 빈 성엔 [조각달] 떠 있고
천 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천손(天孫)*은 지금 어느 곳에 노니는가?
돌계단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니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 천손 :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가리킴.

(나) 작자 미상의 시조

귓도리 져 귓도리 에엿브다 져 귓도리

어인 귓도리 지는 [ᄃᆞᆯ] 새는 밤의 긴 소릐 쟈른 소릐 절절(節節)이 슬픈 소릐 제 혼자 우러 녜어 사창(紗窓) 여왼 줌을 ᄉᆞᆯ드리도 ᄭᅵ오ᄂᆞᆫ고야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동방(無人洞房)에 내 뜻 알리ᄂᆞᆫ 너ᄲᅮᆫ인가 ᄒᆞ노라.

(다) 조위, '만분가'

천층랑* 한 가운데 백척간에 올랐더니
ⓐ **<u>무단한 회오리 바람이 환해* 중에 나리나니</u>**
억만 장(丈) 못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것네.
노나라 흐린 술에 한단이 무슨 죄며
진인이 취한 잔에 월인이 웃은 탓인고
ⓑ **<u>성문 모진 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u>**
뜰 앞에 심은 난(蘭)이 반이나 시들었네.
오동 저문 날 비에 외기러기 우러옐 제
관산 만리 길이 눈에 암암 밟히는 듯
청련시 고쳐 읊고 팔도 한을 스쳐 보니
화산에 우는 새야! 이별도 괴로워라.
망부(望夫) 산전(山前)에 석양이 거의로다.
기다리고 바라다가 안력(眼力)이 다했던고
낙화 말이 없고 벽창(碧窓)이 어두우니
입 노란 새끼 새들 어미를 그리누나!
ⓒ **<u>팔월 추풍(秋風)이 띠집을 거두니</u>**

빈 깃에 쌓인 알이 물불을 못 면하네.
생리 사별(生離死別)을 한 몸에 혼자 맡아
삼천 장(丈) 백발이 일야(一夜)에 기도 길샤
ⓓ **<u>풍파에 헌 배 타고 함께 놀던</u>** 저 벗들아!
강천 지는 해에 배는 탈이 없는가?
밀거니 당기거니 염예퇴를 겨우 지나
만 리 붕정(鵬程)을 멀리곰 견주더니,
바람에 다 부딪쳐 흑룡강에 떨어진 듯
천지 가이 없고 어안(魚雁)이 무정하니
옥 같은 면목을 그리다가 말년지고
매화나 보내고져 역로(驛路)를 바라보니,
옥량* [명월]을 예 보던 낯빛인 듯
ⓔ **<u>양춘을 언제 볼고</u>** 눈비를 혼자 맞아
벽해 넓은 가에 넋이 조차 흩어지니,
나의 긴 소매를 눌 위하야 적시는고.

* 천층랑 : 험한 물결. * 환해 : 관리의 사회. * 옥량 : 옥대들보.

[문제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1)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는 과거를 회상하며 무상감에 젖어 있다.
③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과장된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로 옮아가고 있다.

[문제 2] (가)~(다)의 '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2)

① (가)의 '조각달'은 결핍의 의미를, (나)의 '돌'은 충만의 의미를 담고 있다.
② (가)의 '조각달'은 쓸쓸한 상황을, (다)의 '명월'은 그리운 대상을 떠올리게 한다.
③ (나)의 '돌'은 정적인 느낌을, (다)의 '명월'은 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④ (가), (나)의 달은 관념적 존재이나, (다)의 달은 실제적 존재이다.
⑤ (가)~(다)의 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희생위 국어 솔루션 김대기 4% 국어 http://cafe.naver.com/kdk0619 010-6317-2829

[문제 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3)

① 초월적 존재에 기대어 소망을 이루려 하고 있다.
② 공간적 배경이 시작(詩作)의 모티프가 되고 있다.
③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④ 인간사와 자연을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⑤ 구체적 행위를 통해 화자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 4] 수업 시간에 (나)를 바탕으로 평시조 짓기를 하려고 한다. 주어진 조건을 가장 잘 반영하여 지은 것은? 214)

<보 기>
○원시(原詩)의 주제 의식을 살릴 것.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① 가을 밤 달빛 아래 귀뚜리 귀뚤귀뚤
떠나 간 내 님 얼굴 살며시 떠오르네.
무정타 떠나간 내 님 소식 한 자 없나뇨.
② 집 떠난 석 삼 년에 내 마음 둘 데 없어
동산에 난 초승달에 고향 소식 묻자 하니
무심타 저 구름 속에 문 닫고 들어가네.
③ 지나는 바람에 님인가 여겨 나서 보니
감나무 가지 사이 달빛만 환하구나.
두어라 달빛 속에나 내 님 모습 보리라.
④ 집 잃은 두견이 무슨 미련 저리 많아
이 골짝 저 골짝 오명가명 슬피 우나.
저 두견 내 마음 같아 골골이 울고 가네.
⑤ 꽃 피면 온다 하던 어여쁜 우리 님아
꽃 져도 아니 오니 차가운 방 홀로 지키네.
긴긴 밤 잠 못 이룬 채 나무 되어 서 있네.

[문제 5]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5)

> <보　　기>
> 조위는 연산군 4년(1498) 무오사화(戊午士禍)에 연루되어 전라도 순천으로 유배 가게 되었다. 그는 끝내 유배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는데, 이 때에 임금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을 그린 작품이 바로 '만분가'이다.

① ⓐ : 작자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조정에 불어닥친 정치적 파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 : 무오사화 당시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구절로 볼 수 있다.
③ ⓒ : 임금의 사랑을 잃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작자 자신의 처지로 해석할 수 있다.
④ ⓓ : 무오사화의 화(禍)를 면하기 위해 작자 자신과 동료들이 함께 피난했던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 : 유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작자 자신이 유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정부 국어 윤뿌면 김대기 4% 국어 http://cafe.naver.com/kdk0619 010-6317-2829

서사문학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 아범은 내가 어서 죽었으면 시원할 것이다. 너도 못 오게 하느라고 저희끼리 짜고 전보까지 새에서 못 치게 한 게 아니냐.”

조부가 이런 소리를 할 제 덕기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고 하기는 하였지마는 덕기도 의아는 하였다. 부친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랴 싶으나 창훈 아저씨라든지 최참봉이 부친에게 되돌아 붙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도 모를 일이라고 의심이 난다. 그러나 아무래도 수원집과 부친이 악수를 할 리는 없고 창훈이와 부친의 새가 금시로 풀렸을 리도 없으니 십중팔구는 수원집이 중심이 되어서 무슨 농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 아무리 그래야 밥이나 안 굶게 하여 주지, 그 외에는 막무가내하다.”

조부는 이런 소리도 하였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까짓 재산이 무업니까. 그런 걱정은 모두 병환 중이시니까 신경이 피로하셔서 안 하실 걱정을 하십니다. 얼마 있으면 꼭 일어나십니다.”

덕기는 조부를 안위시키려고 애썼다.

“네 말대로 되었으면 작히나 좋으랴만 다시 일어난대도 나는 폐인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 금고 열쇠를 맡아라. 어떤 놈이 무어라고 하든지 소용없다. 이 열쇠 하나를 네게 맡기려고 그렇게 급히 부른 것이다. 이것만 맡겨 놓으면 인제는 나도 마음놓고 눈을 감겠다. 그러나 내가 죽기까지는 네 마음대로 한만히 열어 보아서는 아니 된다. 금고 속에는 네 도장까지 있다마는 내가 눈을 감기 전에는 네 도장이라도 네 손으로 써서는 아니 된다. 이 열쇠는 맡아 두었다가 내가 천행으로 일어나면 그대로 내게 다시 다오.”

조부는 수원집까지 내보내 놓고 머리말의 조그만 손금고를 열라고 하여 열쇠 꾸러미를 꺼내 맡기고 이렇게 일러 놓았다.

“아직 제가 맡을 것이야 있습니까? 저는 할아버지 병환만 웬만하시면 곧 다시 갈 텐데요! 그리고 아범을 제쳐 놓고 제가 어떻게 맡습니까?”

덕기로서는 도리로 보아도 그렇지만 공부를 집어치우고 살림꾼으로 들어앉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다시 간다고? 못 간다. 내가 살아난대도 다시는 못 간다. 잔소리 말고 나 하라는 대로 할 뿐이다.”

하고 조부는 절대 엄명이었다.

“하던 공부를 그만둘 수야 있습니까. 불과 한 달이면 졸업인데요.”

“공부가 중하냐? 집안 일이 중하냐? 그것도 네가 없어도 상관없는 일이면 모르겠지만 나만 눈 감으면 이 집속이 어떻게 될지 너도 아무리 어린애다만 생각해 봐라. 졸업이고 무엇이고 다 단념하고 그 열쇠를 맡아야 한다. 그 열쇠 하나에 네 평생의 운명이 달렸고 이 집안 가운이 달렸다. 너는 그 열쇠를 붙들고 사당을 지켜야 한다. 네게 맡기고 가는 것은 사당과 그 열쇠 ― 두 가지뿐이다. 그 외에는 유언이고 뭐고 다 쓸데없다. 이때까지 공부를 시킨 것도 그 두 가지를 잘 모시고 지키게 하자는 것이니까 그 두 가지를 버리고도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송장 내놓고 장사 지내는 것이다. 또 공부도 그만큼 했으면 지금 세상에 행세도 넉넉히 할 게 아니냐.”

조부는 이만큼 이야기하기에도 기운이 폭 빠졌다. 이마에는 기름땀이 쭉 솟고 숨이 차서 가슴을 헤치려고 한다.

“살림은 아직 아범더러 맡으라고 하시지요.”

덕기는 그래도 간하여 보았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싫거든 이리 다오. 너 아니면 맡길 사람이 없겠니. 그 대신 내일부터 문전 걸식을 하든

어쩌든 나는 모른다."

조부는 이렇게 화는 내면서도 그 열쇠를 다시 넣어 버리려고는 아니하였다.

덕기는 병인을 거슬려서는 아니 되겠기에 추후로 다시 어떻게 하든지 아직은 순종하리라고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으려니까 밖에서 부석부석 옷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수원집이 얼굴이 발개서 들어온다. 이때까지 영창 밑에 바짝 붙어 앉아서 방 안의 수작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엿듣고 앉았던 것이다.

덕기는 수원집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앞에 놓인 열쇠를 얼른 집어 들고 일어서 버렸다.

"애 아범, 잠깐 거기 앉게."

수원집의 얼굴에는 살기가 돌면서 나가려는 덕기를 붙든다.

수원집은 열쇠가 놓였으면 우선 그것부터 집어 놓고서 따지려는 것이라서 덕기가 성큼 넣어 버리는 것을 보니 인제는 절망이다. 영감이 좀더 혼돈 천지로 앓거나 덕기가 이 집에서 초혼 부르는 소리가 난 뒤에 오거나 하였더라면 머리맡 철궤 안의 열쇠를 한 번은 만져 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금고 열쇠를 한 번만 만져 볼 틈을 타면 일은 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틈을 탈 새가 없이 이 집에 사자가 다녀 나가기 전에 덕기가 먼저 온 것이다. 덕기의 옴이 빨랐던지 사자의 옴이 늦었던지? 저희들의 일 꾸밈이 어설프고 굼뜬 탓이었던지? 어쨌든 인제는 만사 휴의(萬事休矣)다!

- 염상섭, '삼대'

[문제 1] '열쇠'가 덕기에게 뜻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6)

①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② 학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③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만 지는 것을 의미한다.
④ 가장으로서 집안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족쇄를 의미한다.

[문제 2] 조부가 덕기에게 말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7)

① 덕기의 욕심을 자극하여 회유하고 있다.
② 위중한 병세를 내세워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③ 덕기에 대한 신뢰감을 내비치며 설득하고 있다.
④ 복잡한 집안 사정을 들어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문제 3] 윗글에서 '수원집'이 처한 상황을 잘 드러낸 것은? 218)

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네.
②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③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군.
④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최상위 국어 솔루션
김대기 4% 국어
http://cafe.naver.com/kdk0619
010-6317-2829

[문제 4] 윗글에 나타난 조부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19)]

① 가문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아 가부장적 인물이다.
② 손자의 뜻을 받아 주는 것으로 보아 자상한 인물이다.
③ 덕기 아버지에 대한 태도로 보아 이기적인 인물이다.
④ 집안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아 우유부단한 인물이다.
⑤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보아 돈에 결벽증이 있는 인물이다.

[문제 5] 윗글을 제대로 감상하는 효과적인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220)]

① 조부의 심리 상태를 추측해 본다.
② 덕기의 취미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본다.
③ 방안의 분위기가 어떠할지 생각해 본다.
④ 전보가 왜 덕기에게 전달되지 않았는지 추리해 본다.
⑤ 덕기 아버지가 열쇠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추리해 본다.

서사문학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집은 이미 병화(兵火)에 타 버리고 없었다. 다시 처가에 가 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귈 뿐이었다. 이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갔다.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춰 주는데 낭하에서 발자각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최씨가 거기 있었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았다.

<중　　략>

이튿날 최씨가 이생과 함께 옛날 살던 개령동을 찾아가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님의 유골을 거두어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씨와 함께 살았다.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했던 하인들도 돌아왔다. 이생은 이후로 인간사를 싫어하여 친척이나 귀한 손님의 길흉사에도 가지 않고 늘 최씨와 함께 시를 주고받으면서 ㉠<u>**금실 좋게 함께 즐거워하였다**</u>.

그렇게 몇 해가 훌쩍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최씨가 이생에게 이르기를,

"세 번씩이나 가약(佳約)을 맺었으나, 세상일이 서로 어긋나기만 합니다. 아직 실컷 즐기지도 못했는데 슬픈 이별이 문득 닥쳐왔군요."

하고는 오열하였다. 이생이 깜짝 놀라 물었다.

"어찌하여 이러는 거요?"

최씨가 말했다.

"저승길 가는 운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제(天帝)께서는 첩과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죄도 없었기에, 저를 잠시 머물게 하여 낭군과 근심을 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이승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어 하녀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玉樓春)' 한 곡을 노래하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했다.

도적떼 밀려와서 온 세상이 싸움터인데,
구슬 꽃 흩어지고 원앙도 짝 잃었네.
여기저기 널린 유해(遺骸)는 묻어 주는 이 없고
얼룩진 유혼(遊魂)은 하소연할 곳도 없구나.
고당루(高唐樓)에 한번 내려온 무산(巫山) 선녀
깨진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마음이 참담하도다.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두 세계가 아득히 멀어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

한 마디 부를 때마다 삼킨 눈물이 흘러내려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생도 참담한 심정을 걷잡지 못하면서 말했다.

"차라리 부인과 함께 저승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남아 목숨을 보전하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하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 유골이 들판에 널려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

최상위 국어 솔루션
김대기 4% 국어
http://cafe.naver.com/kdk0619
010-6317-2829

라면 누가 능히 장사 지내고 매장하였겠소? 고인(古人)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禮)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를 부인이 다 한 것은 천성이 순수하고 효성스러우며 인정이 독실하고 도탑기 때문이니 감격함을 그칠 수 없었으며, 나 스스로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부인은 이승에서 좀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에 함께 흙으로 돌아갑시다."

최씨가 대답했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첩은 이미 귀신의 명부(名簿)에 실려 있으니 오래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군이 인간 세상에 연연하면 명부(冥府)의 법에 위배되어 죄가 저만 아니라 낭군께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첩의 유골이 모처(某處)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푸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이나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최씨는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지더니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 주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생도 최씨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을 얻어 서너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 절의(節義)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문제 1] 윗글의 주인공 '이생'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221)

① 영웅적인 삶을 살고자 했다.
② 생사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을 했다.
③ 최씨와 해로하는 데 끝내 실패했다.
④ 한시를 짓고 즐길 수 있는 교양을 갖추었다.
⑤ 벼슬도 구하지 않고, 세상일에도 관심이 없었다.

[문제 2]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사관(生死觀)은? 222)

① 사람이 죽더라도 영혼은 사람 곁에 영원히 머물게 된다.
② 사람이 죽으면 바로 육신과 영혼으로 분리되어 사라져 버린다.
③ 사람은 죽더라도 업보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로 새로 태어나서 살아간다.
④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시 이승에 머물 수도 있지만 끝내는 사라진다.
⑤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 행복을 누리거나 지옥에 가 벌을 받으며 지낸다.

[문제 3] ㉠의 상황에서 '최씨'가 불렀음직한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3)

① 못난 대로 외로이 앓은 뒤의 몸
굶주리고 떨면서 사십 년을 살아왔네.
묻노라, 인생이란 진정 얼마이던고.
가슴 속에 맺힌 설움 언제나 눈물일세. (계생, 「빈 방」)

② 하늘은 삼신산 같은 수명을 주시고
까치는 날아와 백세 영화 알려 주네.
만 이랑의 좋은 밭이 내 소원 아니거니
원앙처럼 즐겁게 한평생 보내리라. (송씨, 「새 집」)

③ 밤 연기 속에 오동 꽃 떨어지고
바닷물에는 봄 구름 휑하구나.
꽃다운 풀밭 위의 한 잔 술이여
서울서 우리 다시 만나세. (이달, 「이예장과 이별하며」)

④ 산 위에 꽃 피었고 꽃 아래는 산인데
한 곡조로 그치려니 눈물이 흐르네.
낙동강 물은 끝날 날이 없고
한 머금은 푸른 물결 가서는 오지 않네. (이유원, 「산유화」)

⑤ 밤비에 앞 강물이 모래밭에 넘쳐
만 리에 같은 마음 돛배가 떴네.
생각하면 고향에도 봄은 이미 왔으련만
부질없이 하늘 끝에 쓸쓸히 앉아 있네.
(김운초, 「황강 노인을 기다리며」)

[문제 4] ㉡을 <보기>와 같이 바꾸어 쓰기 위해 나눈 생각들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4)

<보 기>
이생이 슬픔에 겨워 통곡을 했더니 최씨가 다시 살아났다.

① 성근 : 이렇게 되면 행복한 결말이 될 것 같아.
② 혜숙 : 그래. 최씨가 다시 살아나면 사랑을 이룰 수 있을 테니 참 좋겠어.
③ 경연 : 최씨가 살아나는 대목을 이생이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장면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어?
④ 기범 : 이번에는 최씨와 함께 오래도록 살아가는 것으로 하자.
⑤ 은정 :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지. 그렇게 만들면 누가 믿겠어. 소설은 현실을 그려야 하잖아.

희생의 국어 글쓰기
김대기 4% 국어
http://cafe.naver.com/kdk0619
010-6317-2829

[문제 5] 윗글로 알 수 있는 전체 사건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한자 성어와 연결해 보았다. 한자 성어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225)]

> ▶ 두 차례의 이별과 해후
> ▶ 불행의 연속 .... ① 설상가상 (雪上加霜)
> 　o 집이 방화에 불탐
> 　o 부모와 최씨의 죽음
> ▶ 회상 : 꿈같은 과거 (최씨와의 생활) .... ② 일장춘몽 (一場春夢)
> ▶ 최씨의 혼령이 등장
> ▶ 행복한 생활 .... ③ 결초보은 (結草報恩)
> 　o 집 밖에도 나가지 않음
> 　o 시를 주고 받으며 사랑을 나눔
> ▶ 행복한 상황의 파국 .... ④ 흥진비래 (興盡悲來)
> 　o 이생과 최씨의 인연이 다함
> ▶ 최씨가 사라짐 .... ⑤ 회자정리 (會者定離)
> ▶ 이생의 죽음

비문학 독서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1952년 어느 날, 현대 음악가 존 케이지(J. Cage)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그가 강의를 한 곳은 사다리 꼭대기였고, 그 내용은 긴 침묵과 춤이었다. 이 행위는 일반적인 강의 형식과 내용을 뒤집어 놓은 것이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또 어떤 작가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 20개를 길거리에서 녹게 내버려 두어, 사물이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과정을 송두리째 보여 주기도 했다. 다른 예로는 빌딩만한 립스틱이나 전기 플러그 등과 같은 작품을 떠올려도 좋겠다. 친숙한 것을 낯선 것으로, 낯선 것을 친숙한 것으로 보여 주어 인간을 먼 상상의 여행길로 나서게 하는 이런 예술 행위의 본질은 무엇일까?

2 해프닝(happening)이란 장르는 글자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며, 말보다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소재들을 중요한 표현의 도구로 삼는다. 공연은 폐쇄된 극장이 아니라 화랑이나 길거리, 공원, 시장, 부엌 등과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동성이 뛰어나다. 또한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건과 행동들이 파편적으로 이어져 있어 기이하고 추상적이기도 하다. 대화는 생략되거나 아예 없으며, 때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해프닝은 우리 삶의 고통이나 희망 등을 논리적인 말로는 더 이상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내세운다. 이러한 해프닝의 발상은 미술의 콜라주, 영화의 몽타주와 비슷하고, 삶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현대 연극, 랩과 같은 대중 음악과도 통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일회적이고, 일관된 논리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말로 해프닝과 삶 자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

3 다양한 예술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는 해프닝은 기존 예술에서의 관객의 역할을 변화시켰다. 행위자들은 관객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함을 지르거나 물을 끼얹으면서 관객들을 자극하고 희롱하기도 한다. 공연은 정해진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혹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관객들은 볼거리를 따라 옮겨 다니면서 각기 다른 관점을 지닌 장면들을 보기도 한다. 이것은 관객들을 공연에 참여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프닝은 삶과 예술이 분리되지 않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상적 삶에 개입하는 의식(儀式)이 되고자 한다. 나아가 예술 시장에서 상징적 재화로 소수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것을 거부한다. 또 해프닝은 ㉠**<u>박물관에 완성된 작품으로 전시되고 보존되는 기존 예술의 관습</u>**에도 저항한다.

4 이와 같은 예술적 현상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u>예술가들의 정신적 모험의 실천</u>**이라고 할 수 있다. 인습적인 사회 제도에 순응하는 것을 비판하고 고정된 예술의 개념을 변혁하려고 했던 해프닝은 우연적 사건, 개인의 자의식 등을 강조해서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안락한 감정에 마비되어 있는 우리들을 휘저어 놓으면서 삶과 예술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는 이러한 예술적 모험은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예술의 지평을 넓혀 갈 것이다.

김대기 4% 국어
010-6317-2829

[문제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226)]

① 해프닝은 윤리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예술 행위를 기피한다.
② 해프닝은 일상의 예술 행위로서 기존 예술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③ 해프닝은 우연적 사건을 강조하므로, 관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배제한다.
④ 해프닝은 생의 고통과 부조리를 사실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현실의 반영이다.
⑤ 해프닝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삶에 가깝다.

[문제 2] <보기>의 시 작품을 활용하여 윗글의 논지를 보강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7)]

<보　기>

시제4호

환자의용태에관한문제.

1 1 1 1 1 1 1 1 1 1 •
2 2 2 2 2 2 2 2 2 • 1
3 3 3 3 3 3 3 3 • 2 2
4 4 4 4 4 4 4 • 3 3 3
5 5 5 5 5 5 • 4 4 4 4
6 6 6 6 6 • 5 5 5 5 5
7 7 7 7 • 6 6 6 6 6 6
8 8 8 • 7 7 7 7 7 7 7
9 9 • 8 8 8 8 8 8 8 8
0 • 9 9 9 9 9 9 9 9 9
• 0 0 0 0 0 0 0 0 0 0

진단 0.1

26.10.1931

이상　책임의사　李　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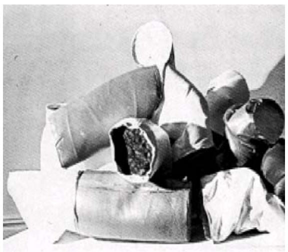
① 이 시가 당시 현대시의 주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평 자료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어.
② 이 시에는 기존의 언어 체계를 불신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는데, 그 점에 주목해야 할 거야.
③ 자신을 '미쳤다'고 하는 독자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시를 쓴 시인의 의도도 거론해야겠지.
④ 이 시처럼 상식적으로는 시라고 보기 어려운 작품들을 모아 놓은 선집(選集)이 있다면, 그걸 사례로 들어도 좋지 않을까.
⑤ 이 시를 포함한 연작시가 신문에 연재되다 편집진의 압력으로 중단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던데, 그것도 유용한 자료가 될 거야.

[문제 3] ㉠의 입장에서 <보기>와 같이 윗글을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228)

> <보　　기>
>
> 기존의 작가들은 자신의 창조적 개성과 예술적 전통을 조화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은 문화적 자산으로서 길이 보존되는 동시에 다수의 관객이 함께 즐기는 공동체의 산물이 된다.
> 이에 반해 해프닝은 (　　　　　　　　　　　　　　　　)

① 공연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해서 관객은 작품 해석의 기준을 상실한다.
② 관객의 상상력을 촉발하려는 의도가 강해 작품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
③ 개인과 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가볍게 다루어 관객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기 어렵다.
④ 자의식이 강하고 우발적이므로 관객 사이의 합의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술적 전통으로 계승되기 어렵다.
⑤ 직관보다는 이해를 강조하므로 취향이 서로 다른 다수의 관객을 만족시키기 어렵고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문제 4] <보기>는 해프닝 예술 작품을 소개하는 신문 기사이다. ㉡을 고려하여 <보기>의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표제와 부제를 알맞게 붙인 것은? 229)

> <보　　기>
>
> 
>
> 1967년 미국의 작가 올덴버그(C. Oldenburg)는 <거대한 담배꽁초>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스티로폼으로 채워진 담배꽁초는 실제로 거대하다. 일상적인 사물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관객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불쾌감마저 일으킨다. (후략)

① 고정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예술
　- 사물의 확대를 통한 의미의 전복
② 사회적 일탈을 부정한 정형 예술
　- 조화.균형.절제의 세계 지향
③ 논리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예술
　- 입체 공간에서의 현실감 체험
④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예술
　- 다양한 관점으로 사물을 해석
⑤ 관객의 무지를 폭로하는 예술
　- 열린 시각으로 사물의 유용성 강조

의정부 국어 윤쿠연 김대기 4% 국어 http://cafe.naver.com/kdk0619 010-6317-2829

비문학 독서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 작품은 객관적, 서술적인 동시에 주관적 표현이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예술적 인식은 분석적이기에 앞서 종합적이고, 부분적이기에 앞서 총체적이다.

문학이 표현하는 것은 언제나 포괄적 전체이다. 이런 점에서 문학은 과학이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의 한 측면인 정신적 욕구를 채워준다.

다양한 예술 양식 중에서도 언어를 표현 매체로 삼고 있는 문학, 특히 ㉠소설은 이러한 인간의 정신적 욕구를 채우는 데 가장 적절하다.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식 자체를 반성하고, 외적으로 표출되지 않는 도덕적 갈등과 심리적 드라마, 미적 감동과 그것에 대한 반성,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철학적, 실존적 문제를 반성 또는 비판하고 새로운 세계와 가치를 구상하고 창조해 낼 수 있다.

우리가 첨단 과학 기술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문학에 비해 이는 수단을 제공하지만 목적을 설정할 수 없고, 분석하지만 종합할 능력이 없다. 그것은 물질을 생산하고 교환하지만 그 의미에 어둡고, 힘을 발휘하지만 진과 위, 선과 악의 가치 구별에 어둡다. 그것은 인간의 활동을 촉진하지만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일차원적 세계를 초월하지 못한다. 한 마디로 첨단 과학 시대는 산만하고 혼돈된 공허의 세계로 인간을 몰아 넣는다. 그렇기에 문학적 사고, 서술, 그리고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약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고 문학 작품은 계속 생산, 소비되고 있다. 첨단 과학 기술 사회에서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문학이 과학 지식이나 과학 기술 그리고 그 밖의 활동으로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의 요청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속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한국 문학은 다른 어느 사회와 비교해도, 그리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놀라운 성황을 누리고 있다. 문학 작품의 양적 생산과 소비는 눈에 두드러지게 활발하다. 숱한 문학지가 발행되고 수 없는 문학 행사가 문화계에 클로즈업되어 보도된다.

한국의 문인들이 누리는 사회적 위상은 다른 어느 산업 사회에서보다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적 지식이나 과학 기술에 의해 만족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문학이 채워주고 있다는 것이며, 한국인은 다른 어느 국민보다도 절실히 그러한 것을 찾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문학의 활력은 오로지 피상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현재 한국 문학은 대체로 문학 본연의 기능, 즉 종합적 인식의 기능, 사색적 그리고 비판적 역할을 저버리고 안타깝게도 반성하고 비판되어야 할 과학 기술 문명의 흐름에 휩쓸려들었다는 여러 징조를 보인다. 세계, 사회 그리고 시대에 대한 진지한 총체적 인식과 반성과 비판의 장이어야 할 문학이 일회적 오락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문제 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30)

① 통념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다.
② 다양한 측면에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③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④ 용어의 명확한 개념 규정을 통해 논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
⑤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적으로 제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문제 2] 윗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바른 것은? 231)

① 한국 문학은 시대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② 과학은 문학이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의 정신적 욕구를 채워준다.
③ 인간의 지적 욕구는 과학에 의해 가장 만족스럽게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④ 과학 기술에 의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면 정신적 욕구는 만족될 수 있다.
⑤ 과학 지식이 중요한 의미를 갖더라도 인간의 지적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 한다.

[문제 3] 윗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232)

더욱더 [Ⓐ]이/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① 문학과 과학의 조화
② 진지한 탐구와 사색의 문학
③ 긍정적인 과학 기술에 대한 인식
④ 호기심을 자극하는 진리 탐구의 학문
⑤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첨단 과학 기술

[문제 4] 윗글의 논제가 드러난 안내문을, <보기>와 같이 작성하려고 한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33)

<보 기> 제○회 동아리 발표회 ▶ 논 제 : 첨단 과학 기술 시대, [㉮] ▷ 주 최 : 꿈모리 독서토론 동아리 ▷ 장 소 : 문화관 4층 회의실 ▷ 시 간 : 2003년 5월 ○일

① 문학의 특징은 무엇인가?
② 문학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③ 문학은 과학과 분리될 수 있는가?
④ 문학은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⑤ 문학은 인간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가?

[문제 5] ㉠과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34)

① 인간의 정서를 절제된 언어의 질서 속에 조직해 낼 수 있으므로
② 허구이지만 진실성을 가진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서술자를 통해 표현하므로
③ 인생의 의의와 가치를 스스로 객관화시켜, 반성하고 새로이 창조할 수 있으므로
④ 인간의 가치있는 체험을 말과 글로 표현한 예술로 보편적 인간의 삶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⑤ 인생에 대한 관조와 체험을 개성적인 문체로 표현하여 작가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으므로